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농어촌100교회 · Vision2030 · 한가정한선교사 후원자 모집

2025년도 농어촌100교회 운동과 Vision2030 운동, 한가정한선교사 운동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성도들은 후원 접수 용지를 작성하여 로비에 비치된 접수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따뜻한 나눔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과 민족,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5 상반기 장학생 선발

신청 마감 : 2월 7일(금)까지 / 사무국으로



서울교회 장학회(회장:오윤걸 장로)는 2025 상반기 장학생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장학생은 신앙생활에 모범적이며 교회봉사와 청년부에 출석 중인 대학생으로 봉사부서와 청년부 추천서, 자기소개서 또는 신앙 간증문,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를 2월 7일(금)까지 교회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청년부에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며,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발에서 제외합니다. 장학금 수여식은 2월 23일(주일) 저녁 찬양예배에 있을 예정이며, 선발된 학생은 전원 참석하여야 합니다.

2024년도 각 위원회 · 부서 및 자치회 대상 정기 회계감사 실시

오늘 오후 4시까지, 사무국에 제출 / 감사 대상 기간 : 2024. 1. 1 - 12. 31(1년간)

감사부(부장 : 차영도 장로)는 서울교회 운영규정 제15조(재정위원회) 제5항(감사)에 의거하여 2024년도 각 위원회 · 부서 등을 대상으로 정기 회계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테반회, 권사회 ▲ 위원회(부서) 11개 (찬양, 교육, 새가족, 교구, 전도, 선교, 재정-사무국, 디자인부, 멀티미디어부, 살롬대학, 순례자) ▲ 자치회(8개의 선교회, 8개의 전도회)입니다.

2024년에 위 해당 부서 회계 담당자(부서장)는 담당 부서의 예산수령 개별통장(사본), 회계장부(원본) 및 사용내역 증빙 영수증(이미 교회에 제출한 부서는 제외)을 1월 12일(주일) 오후 4시까지 사무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실 2025년 겨울학기 모집

	구분	요일	시간	과정	장소	강사
악기	클래식기타(기초반)	주일	10:15-	10주	B101	장윤식 집사
	클래식기타(중급반)		12:40-			
	통기타		12:30-			
	베이스기타	토	11:00-		505	박민서 집사
	드럼	토	11:00-	10주	601	한도연 선생
	색소폰	토	14:00-	10주	B101	정인주 단장
	핸드벨	주일	14:30-	10주	402	송재월 권사
	피아노(1:1수업)	토	9:30-	10주	502	양경실 집사
성악	즐거운 성악교실	토	11:00-	10주	503	신모란 집사
미술	사임당의 뜰(초충도)	목	15:00-	10주	704	유은경 집사
건강	매트 필라테스	토	12:00-	10주	702	박재현 선생
댄스	조이 워십(한국무용)	목	13:30-	10주	702	조경숙 권사
	조이스(방송댄스)	토	11:00-	10주	701	김보영 선생

서울교회는 문화나눔, 말씀에 기반한 기독교 문화의 형성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교회 중심의 리더 양성 문화를 고취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열린 교회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1. 학기운영:클래스당 3개월 단위, 10주 코스
2. 25년도 겨울학기: 1. 11일(토) - 3. 16(주일), 10주

3. 운영비:각 학기당 90,000원 (10시간 기준, 색소폰 반은 자체 운영)
4. 조이스-방송댄스 신설, 조이스-방송댄스는 강사 사정으로 2월부터 시작됩니다.
5. 클래스 특성에 따라 개강/종료일자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 자료를 원하는 성도들은 seoulch@hanmail.net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① 성명 / ② 주민번호 / ③ 전화번호
- ④ 주소 / ⑤ 가족합산 여부

연말정산 자료는 수신 이메일로 회신하여 보내드립니다.

- 문의전화 : 02-558-1106 (담당: 송미라 권사)
- * 제공된 개인 정보는 연말정산 후 삭제함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 * 신한은행
100-034-868968(대한예장 서울교회)
- * 장학금 계좌 : 신한은행
100-037-522042
대한예장 서울교회 손달익

6. 서울교회 교회학교 학생 수강 시 수강료의 50%를 교회에서 지원합니다.
7. 문의 및 신청: 남재은 집사, 교회 사무국
8. 구글신청서 양식 : 옆 QR



새 날을 준비하는 신앙인

삼하 5:1-12



순달익 위임목사

인간을 정의하는 표현 중에 'Homo Esperance, 희망하는 존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희망함으로 존재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흔히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을 하는데 그 역시 세상이 혼란하고 역사가 소용돌이치는 어려운 시대에 관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마 11:12).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도 도전정신과 강한 의지와 헌신이 필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깊이 상처 받고 역사의 미래에 대하여 깊은 회의에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하신 것은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도전하고 노력하고 침노하는 자처럼 죽음을 무릅 쓰고 도전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 열두지파의 추대를 받고 왕이 되는 장면입니다. 이때는 정말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과 지도부가 궤멸한 직후 이스라엘의 국가적 위기를 수습하고 열두지파를 결속시키고 가장 강력한 시대를 만드는 일에 성공합니다.

1. 용서와 화해를 선택하다

다윗이 유다 지파의 추대를 받고 왕이 된 후에 가장 어려운 문제는 전사한 사울 왕을 지지하는 세력들의 반발이었습니다.(삼하 2:8-9) 그들은 다윗에게 투항하지 않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고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분열을 극복하고 열두지파 모두를 통합하는 통일 왕국을 건설하려고 했고 그 방법으로 전쟁이 아닌 용서와 화해와 포용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정치적 행위라고 평가하기도 하고 진정성 있는 사랑으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런 방법이 사울을 따르던 모든 지파들을 감동시키고 안심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1절). 열두지파의 대표들은 다윗을 찾아와 다윗의 왕국에 합류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당신이 진정한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렸고 때로는 무력진압의 유혹이 있었지만 다윗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유화정책을 실천하고 그들이 감동할 때까지 기다리며 평화를 향한 그의 진심을 보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새로운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세력을 구축하며 대항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무력진압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며 애굽에서부터 함께 고락을 같이하여 지금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천년의 역사에서 서로 이해가 달라진 것은 불과 20여 년입니다. 다윗은 20년의 갈등 때문에 미래 전체를 파국으로 만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며 마침내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 냅니다. 이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조화와 연대였습니다.

미래를 희망으로 볼 수 있는 근원은 용서와 화해를 통해 평화를 구축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대를 전쟁과 진압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사랑과 협력의 대상으로 바라볼 때 가능한 일입니다.

2. 도전정신을 이어가다

미래를 희망으로 볼 수 있는 근원은
용서와 화해를 통해
평화를 구축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대를 전쟁과 진압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사랑과 협력의 대상으로 바라볼 때
가능한 일입니다

다윗의 30년 인생은 다른 사람의 수백 년 인생보다 파란만장하고 험난했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권력을 장악하여 명실상부한 열두지파 전체를 지배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감당 못할 시련을 당한 후에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부음 받는 절차를 세 번이나 거쳤습니다. 어린 시절 집으로 찾아온 사무엘 선지자에게 발탁되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서 첫 번 기름부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사울이 죽은 후 유다 지파 사람들이 헤브론으로 찾아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삼하 2:4) 그리고 세 번째로 이스라엘 열두지파 대표들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옹립했습니다. 다윗은 왕의 즉위식을 세 번이나 한 후에 비로소 실질적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숨 돌리고 좀 쉬어갈 만도 했지만 쉴 틈도 없이 측근들과 함께 예루살렘 정복에 나섰고 결국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곳을 다윗 성으로 불렀습니다. 예루살렘은 가나안 정복 후 수백 년간 당연히 포기한 지역이었고 누구도 정복을 시도할 꿈도 꾸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절벽 위의 물 길은 곳을 기어 올라가는 상상초월의 방법으로 이 지역 정복을 시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 예루살렘도 그들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차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고 또 기도하고 도전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주실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일이었고 또 할 수 있는 일로 믿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그는 도전했고 승리했습니다.

미래를 희망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도전정신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려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시 18:29) 다윗은 수많은 장벽들이 그 앞에 있었지만 주를 의뢰하고 의지하며 담을 뛰어넘듯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불가피하게 큰 산을 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단 강을 건너지 않고 가나안을 얻을 수 없었던 것처럼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않고는 나라의 미래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절벽을 기어올라 점령을 시도했습니다.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3. 기본에 충실하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10절).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왕국은 점점 더 세력을 얻었지만 이것은 동시에 국제적 견제와 도발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걸어왔고,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 위한 큰 일을 시작했습니다.(삼하 6장) 크고 작은 일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진행하면서 다윗이 결코 망각하지 않았던 기본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12절).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권능을 주시고 전투 능력을 주시고 왕의 지위에 세우신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돌보며 하나님의 백성들로 번영하도록 하시려는 목적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희망으로 만들려면 나는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일 뿐이라는 존재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진보가 가능하고 미래가 더 가까이 다가오도록 살아야지 내일을 파괴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 근본에 충실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성실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통치행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임'을 항상 기억함으로 위대한 시대를 창조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스데반회를 덮으소서



김용기 안수집사
(제2 스테반회 회장)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브리서 10:24-25)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용서하고 위로하는 스테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가슴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짝 차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우리 안에 형성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격이 변하는 것입니다. 사랑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은 성령의 은사(로마서 5:5)입니다.

서울교회 스테반회는 올해부터 55세까지는 제1 스테반회로 56세부터는 제2 스테반회로 분리하여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예수님 모습 닮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유익을 위해 나를 낮추는 일과 서로의 생각 차이로 상대를 무시하는 행동이 있었는지 돌아보는 한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스데반회의 주요 봉사로는 지하주차장에서 차량관리 안내와 8층 만나홀 설거지 봉사에 여러 손길이 닿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스데반회 주관 행사로 교제와 소통과 화합을 위하여 2월 윗놀이 대회 5월 지하주차장 대청소 6월 체육대회 10월 가을 둘레길 행사를 계획하고 지도목사님 모시고 삶의터전 심방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에는 교회를 위하여, 청빙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스테반회 회원들과 당회 소속기관으로 교회발전에 작은 모퉁이 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간 어려운 시기에 여러 가지 일들로 교회를 떠난 성도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힘을 다하도록 할 때입니다. 성도간에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기독교인이 되어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게 하시고 우리 민족 앞에 놓인 국가적 과제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되게 하소서.

하나님, 모든 스테반회 회원들과 더불어 몸 된 서울교회의 부흥과 아름답고 성령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몸과 뜻을 다하여 스테반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며 손길이 필요한 곳을 돌아보는 공동체!



김영희 안수집사
(제1 스테반회 회장)

2025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부터 스테반회를 연령별로 제1 스테반회(35-55세)와 제2 스테반회(56-70세)로 새롭게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제가 제1 스테반회의 회장으로 임명된다는 것을 알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안수집사들의 양적인, 질적인 부흥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아직 회사 생활로 바쁜 상황에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임원진들을 제대로 구성할 수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의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회장직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모이기에 힘쓰는 제1 스테반회가 되고자 합니다.

스데반회를 연령별로 나눈 목적이 연령대의 차이를 줄여 활성화된 모임을 통해 교회의 중추적 일꾼이 되라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30대 안수집사님들로부터 초/중/고 자녀를 둔 40대에서 50대 중반까지의 안수집사들이 식사 교제와 기도 모임을 통해 사랑과 연합의 제1 스테반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주님의 몸 된 교회에 충성하는 제1 스테반회가 되고자 합니다.

2008년 안수집사 임직 당시 고 이종윤 원로목사님께서 악수례에서 하신 말씀 "죽도록 충성합시다!"를 마음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후배 안수집사들에게 전하며, 다시 다짐을 하게 됩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한 예배와 같이, 꾀대를 향하여 달음질하는 바울과 같이, 제1 스테반회의 동역자들과 함께 교회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제1 스테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1 스테반회는 복음을 위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겸손히 섬기며, 손길이 필요한 곳을 돌아보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제1 스테반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박중숙 권사
(제2 권사회 회장)

지난해 말 교회로부터 제2 권사회 회장직을 요청 받고 수 일을 기도하며 부족한 내가 과연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순종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친정어머니의 격려가 있었지만 저 자신이 미숙하고 모든 것에 부족한 것을 알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 내가 다니던 교회의 권사님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친절하고 미소와 인자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교회의 어느 장소를 가도 늘 그곳에 계셔서 교인을 살피시고 굿은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인자한 어머니 같았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때 권사님들은 교회 곳곳에 그렇게 선한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일일이 나열할 순 없지만 서울교회 믿음의 선배님들 또한 교회의 부르심에 무조건 순종했고 교회가 기쁨 때나 슬픔 때나 어려움에 있을 때나 크고 작은 모든 사역들을 기쁨으로 섬기신 것을 기억하며 저희들도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려 합니다.

주님의 몸 되신 서울교회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아름다운 피조물들이 동그라미, 세모, 네모와 같은 모습으로 무지개 빛보다 더 많은 빛깔들로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우리 권사회는 서로를 존중하되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 연합하고 화목하여 아름다운 하모니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청지기들이 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불변한 진리이듯 권사들 또한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않는 권사로서의 덕목들을 늘 가슴에 새기며 삶으로, 섬김으로, 기도로 실천하겠습니다. 소리내는 사람들이 아닌, 따뜻하고 넓은 품의 어머니의 모습으로 인내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모범을 보이며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의 질서와 규칙에 순종하고 협력하는 기본에 충실한 제2 권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큰 소망을! 함께 공감을! 그리고 우리 서울교회!



박민숙 권사
(제1 권사회 회장)

기독교에 대하여 아는 것이라고는 미션스쿨에서 배운 기말고사용 성경 지식과 채플, 기독교학 관련 3학점의 필수 교양과목 이수뿐이었던 저는 1992년 결혼과 함께 시어머니와 남편이 섬기던 서울교회에서 6개월간의 새가족 과정을 이수하고 직장생활로 주일성수만 했습니다. 이종윤 목사님께서 교회학교 학생들의 신앙성장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비유를 콩나물시루에 물을 주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콩나물은 자란다고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이렇듯 미숙하고 부족한 저를 가르치기보다는 칭찬으로 기다려 주시고 작은 봉사를 하면 크게 기뻐하셨던 어머니, 아내가 진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한다는 남편, 30여 년간 서울교회 안에서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보여 주셨던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향한 신행일치의 모습, 중보기도로 먼저 다가와 손잡아 주시던 그 사랑이 제게 성령의 단비가 되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2025년에는 당회의 결정으로 권사회가 1, 2로 다시 나뉘어 시작합니다. 다음 세대였던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 각기 다른 은사대로 배우고 섬기면서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중직자가 되어 54명이 제1 권사회로 모였습니다. “더 큰 소망을, 함께 공감을, 그리고 우리 서울교회”라는 1권사 자체의 기도제목을 가지고 지난주 위임목사님 설교 말씀처럼 다시 원점에 서 있습니다. 의욕만 앞설 수도 있고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2권사회 선배님들이 함께 계셔서 배우고 또 협력할 수 있어 무엇보다 안심이고 든든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출발하겠습니다. 특히 2025년 서울교회의 새로운 변화 속에서 1권사회에 주어지는 크고 작은 사역들을 54명이 함께 서로의 부족함을 사랑으로 메꿔가며 완성해 가겠습니다. 믿음의 계대와 함께 순종과 헌신의 계대를 이어가는 1권사회가 되겠습니다.

광야를 지나 부흥의 땅으로 입성하는 청년부가 되길...



유승현 성도
(청년부 회장)

25년도 청년부는 변화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찬양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신앙적으로 좀 더 성숙한 청년부가 되길 희망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청년부와 서울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소그룹)팀모임을 통해 청년부 내의 믿음을 굳게 다져나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열두제자를 훈련시키시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려고 전도에 나선 것처럼, 목사님을 통해 배우고 청년들이 서로 교제하며 함께 천천히 믿음으로 성장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도 1, 2, 3차 전도 여행을 혼자 하지 않고 동역자가 있었으며 모세도 형 아론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가 왜 중요한 것

인가? 그리고 소그룹(팀모임)이 왜 중요한 것인가 깨닫게 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오직 예수!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성경 말씀은 저에게 여러 가지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는 것,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걸어가신 예수님을 닮아가려 하는, 걸으신 그 길을 따라 걸으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는 믿음과 믿음의 실천(행동)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고, 청년부가 25년 한 해를 지내며 삶과 말씀을 따로 보지 않고 삶과 말씀을 일치시키는 삶(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가는 변화의 씨앗이 심어졌으면 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청년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

어가는데 광야에서의 40년이란 긴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것처럼 서울교회 청년부도 이제는 광야를 지나 부흥의 땅으로 입성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세대에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언젠가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이 믿음을 실천하며 믿음으로 기쁘게 나아갈 수 있는 서울교회와 청년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25년 청년부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는 청년부가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뜨거움이 밖으로 흘러 넘치는 청년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성경에 대해 궁금해서 오셔도 좋고, 친구 따라 오셔도 좋고, 어떤 이유로 청년부를 오셔도 좋습니다. 청년부는 교회의 모임에 나오는 한 분 한 분을 고맙고, 기쁘게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5강 : 성만찬(2)

77문 : 믿는 자들이 떼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그의 몸과 피로 먹이고 마시우겠다는 약속을 어디서 하셨습니까?

답 : 성찬을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바울 사도는 거듭 이 약속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 질문은 그리스도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셨다고 할 때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냐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이 필요한 이유는 로마 가톨릭의 경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세례와 성만찬 이외에도 다섯 개를 더하여 일곱 성사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으면 성경에서 근거를 가져와서 그럴듯한 논리를 내세워서 성사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세례와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받으시고 행하셨지만, 결혼은 예수님께서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은 결혼을 성사로 인정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결혼식을 복되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옵니다.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명령에 근거한 그리스도교의 제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의 말씀을 하신 것을 기록한 복음서의 말씀이나 구전전승을 문자로 기록한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그의 몸과 피로 먹이고 마시우겠다는 약속은 마태복음 26장 26-28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나의 피 곧 언약

의 피니라.

한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3-26절에서 주님께 받은 성만찬 제정의 말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마태복음 26과 고린도전서 11장은 성만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성례임을 알려주는 분명한 성경적 근거가 됩니다.

78문 :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합니까?

답 : 아닙니다.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죄 씻음 자체도 아니며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표와 확증인 것처럼 주의 만찬의 떡도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찬의 떡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례의 본질을 나타내는 성례적 용어입니다.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한다면, 떡을 먹을 때 살 맛이 나와 하고 포도주는 피 맛이 나와 할 것입니다. 그러나, 떡은 여전히 떡으로 남아 있어서 떡 맛이 나고 포도주도 여전히 포도주로 남아 있어서 포도

주 맛이 납니다. 목사 또는 사제가 성만찬 제정의 말씀을 선포하고 축사한다고 하여 떡이 살로 변하고 포도주가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변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에서 믿는 화체설은 떡이 살로, 포도주가 피로 변한다고 가르칩니다. 중세 철학의 복잡한 용어를 가지고 와서 형상, 실재, 본질, 등으로 나누어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떡과 포도주라는 형상과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는 본질을 나누고 떡과 포도주라는 형상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실재한다. 떡과 포도주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

이는 것은 형상은 그대로이고 본질이 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교리라는 것이 전제와 명제를 정해놓고 그 정해진 바를 설명하기 위해서 논리와 철학을 동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설명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다만, 바른 교리 바른 신학이 되기 위해서는 그 특정 교리가 복음의 메시지에 비추어서 합당한지,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지, 다른 교리와 충돌이 되지 않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이러한 점점이 있었기에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가톨릭의 화체설을 비판하고 새로운 성례관을 주장하였습니다.

정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음을 믿고 그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는 것을 말합니다.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고난의 신비를 이해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만찬 예식에서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가

특별한 이유는 그 떡과 포도주가 특별한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고, 성만찬 예식에서 축사하는 목사나 사제가 신비한 능력으로 떡과 포도주를 특별하게 변화시키기 때문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떡과 포도주가 하기 때문입니다. 개혁교회 전통에서 크게 놓친 것 가운데 하나는 성만찬을 자주 시행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가 참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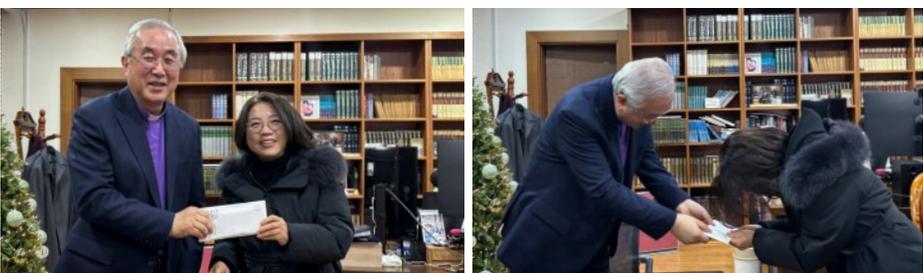
음식이며 참된 음료로서 우리 영혼에 유익을 주는 음식인 동시에, 성만찬의 식탁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경험하는 자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성만찬의 식탁에 초대되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확인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확인하는 기회를 좀 더 자주 갖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는



▲ 지난 주일(1월 5일)은 2025년 첫 주일로 성찬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사진 : 정승균 안수집사)
 ▼ 지난 1월 8일(수) 손달익 위임목사님은 교회를 방문한 신임 대치1동 동장과 직원들에게 구제금 500만 원을 전달하였습니다.



식사 제공



- 김성준 은퇴 안수집사 · 김선영 권사 가정 (김선영 권사 모친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배식 봉사

이번 주 : 마리아
 다음 주 : 에스더

설거지 봉사

이번 주 : 스테반회 구제부
 다음 주 : 스테반회 교육부

2025 전교인 성경암기표

교구(부서):

일 자	요일	1년 1독
1월12일	주일	창 37-40
1월13일	월	창 41-45
1월14일	화	창 46-48
1월15일	수	창 49-50
1월16일	목	출 1-4
1월17일	금	출 5-7
1월18일	토	출 8-11

이름:

맥체인 성경통독					
창13	마12	느2	행12		
창14	마13	느3	행13		
창15	마14	느4	행14		
창16	마15	느5	행15		
창17	마16	느6	행16		
창18	마17	느7	행17		
창19	마18	느8	행18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서울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더욱 견고히 서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모든 사역과 행사가 준비되고 실행되게 하소서.
2. 제4대 위임목사 청빙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온 성도가 하나 되어 기도로 준비하며 청빙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3.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며 전쟁과 분쟁의 위협 속에 있는 나라들을 주님의 평화로 이끌어 주소서.

■ 섬기는 분들

◇ 손달익 위임목사

- ◇ 부목사 김익환 최종국 황하은
- ◇ 교육목사 손주찬
- ◇ 준전임전도사 성선혜
- ◇ 교육전도사 배인혜 김가은 조하영 안반석
- ◇ 협동목사 양정호
- ◇ 호산나대학 교목 장석남
- ◇ 사무장료 최형열 이강인 차영도 유흥기
- 서은석 노제현 김광태 김태연
-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백도환
- 임우택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본 당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웨스트minster홀
	2부 예배	오후 7시	웨스트minster홀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minster홀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영아부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403호
유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6호
유치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2호
유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1호
초등부	오전 10시 30분 - 12시	601호
중등부	오전 10시 30분 - 12시	501호
고등부	오전 10시 30분 - 12시	101호
청년부	오후 3시 30분 - 5시	601호
신혼가정부	오후 12시 30분 - 2시	706호
사랑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603호
소망부	오전 10시 10분 - 11시	102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602호
새가족부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202호
세례교육부	오후 12시 10분 - 오후 2시	609호

■ 홈페이지QR코드



■ 유튜브 QR코드



■ 교회 오시는 길

